

새군산소식

군산부설초, 미래의 교사와 함께한 특별한 무대, 한복 패션쇼에 참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교대 재학생들과 군산부설초 5·6학년 학생, 전주부설초 3,4학년 학생 등 50여명이 함께 준비한 ‘한복 패션쇼’가 지난5일 전주교대 중앙 잔디밭 및 실과관에서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전주교대 최경은 교수님께서 기획과 진행을 맡고, 초등학생들과 함께 전통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꾸미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한복을 입고 자신감 있게 무대를 누비며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군산부설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렸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고, 행사에 참여한 교대생은 “어린이들과 전통문화를 나누며 교사로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김신철 교장은 “이번 한복 패션쇼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교대생들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교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 최경은 교수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복 패션쇼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함께 관람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되었으며,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따뜻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